www.GangPlant.co.kr
시원하게! 편리하게! 부드럽게! 친절하는!
강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토/목/일 AM/PM, 매주 둘째주 일요일 휴무

佛教新聞

성지순례 해외여행 맞춤여행 중년트레킹 환공권
또 다른 감성을 만나는 힐링의 여행!
(두)마야투어 조승환 회장
www.mayatour.co.kr 02-722-9001 010-8443-9001

1960년 1월 1일 창간 주간제 발행
불기 2556년 5월 16일 (2012년 / 단기 4345년 불력 윤3월28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817호

천고의 가르침은 만고 진리의 등불…

■ 스승의 날 '묘법 스승님께 드리는 글'

나는 15세에 묘법스승님을 첫도 운운사에서 만났다. 1967년의 일로 기억한다. 스승님을 운운사에서 것년,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다시 수원 봉녕사에서 3년간을 보냈고, 중간으로 다시 3년을 보냈다. 처음 운운사에서 보았을 때, 그 때의 감동을 지금도 기억한다. 모습도 거룩하고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자상하신 그 모습이 어린 내 가슴에 가만가만 와 있다. 나는 그때부터 스승님께 살 보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모범생이 되려고 노력했다. 배운 글을 하루에 300번 이상 읽고 경전까지 읽은 한글전음을 선전 신문을 읽고서였다. 세로 지은 법의 초배를 바르기 위해 우리 반에게 던져준 오래된 신문에 이제 한문은 쓰지 않고 한글을 전용했다는 기사를 읽는 순간, 세상에서 쓰지 않는 한문만 매일 읽고 있는 나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그날부터 경 읽던 일을 단제하려고 대학 갈 일을 꿈꾸었다.

이제 돌이켜보면 파묻어 보면 경전을 읽어서 경을 보는 힘을 길렀던 일도, 큰 충격 속에서 대학을 졸업하려고 발돋움했던 일도 스승님의 깨우쳐주신 큰 은혜였다. 그 덕에 많은 슬픈 이야기들이 스승님과 나의 삶속에 엮여져 있다. 때로는 스승님과 가장 먼 거리에 서있기도 해였고, 그 먼 거리가 운운사에서의 나날을 추억하는 향수와 하여금을 포상했던 마음으로 보낸 시절도 있었다. 첫 번째 제자이면서 제일 늦게 전감을 받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게 있다.

이제 스승님은 떠나셨으나 그 은혜는 단절 없이 나에게 지속되었음을 새삼 깨닫는다. 부족한 제자에게 봉녕사 한 구석을 제우라고 당부하신 마음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제 나 개인의 스승이 아니라, 한국비구니계의 스승이시며 봉녕 출신 모두에 소중한 스승이시다. 그 분의 모습과 당부를 마음에 간직하고 기념 림을 조시(대화)로서 올렸다.

그 옛날 영산회상 대웅도 연꽃 자리 / 오늘날 광교산의 고이 오셔 마무셨네 // 사바 인연멸의 향기 온 누리에 퍼리고서 / 바람 되어 떠나신 님 허공 속에 영원하리 // 부처님 정법안장 세주묘원 연고운 모습 / 수행으로 살 새우고 상좌강의 날 저무리 // 나의 제자 비구니계 창설계행 바로 세워 / 부처님 거룩한 법, 마애종김 불 밝혀라 // 천고(千古)에 가트 점은 만고(萬古)에 진리 등불 / 봉녕운파 수행니행(行)단어 보불 선래 당부하네.

본각스님 종앙승가대 교수

국민과 불자 여러분께 참회드립니다

세간의 희양에 더욱 초연하여 인천의 스승이 되어야 할 수행자들이 최근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불교를 아끼는 국민과 불자들에게 심려와 허탈감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참회드립니다.

더불어 종단의 책임자로서 자비와 화합에 승가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는 많은 수행자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불교의 음공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배려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소외받는 이들의 곁에서, 생명을 살리느냐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승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총무원장으로서 지난날의 과오와 안일함에 대해 자성하며 종단 전체가 참회하고 자주적는 뜨겁으로 정진해 가겠습니다. 총무원장인 저부터 108 참회 정진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과 불자들께서 종단이 자성하고 새스러는 모습을 지켜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불기2556(2012)년 5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종단 일부스님 도박파문관련

총무원장 스님 '참회문' 발표

총무원 부실장 일괄 사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사진)이 일부 스님들이 도박 파문과 관련 국민과 불자들을 깊은 참회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종단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벌, 자숙과 참회의 정진을 약속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일 발표한 참회문에서 "세간의 희양에 더욱 초연해야 인천의 스승이 되어야 할 수행자들이 최근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불교를 아끼는 국민과 불자들에게 심려와 허탈감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참회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종단의 책임자로서 자비와 화합의 승가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는 많은 수행자들에 누가 된 것에 대해 부처님 전에 엎드려 참회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수행자답지 못한 이번 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종법·령에 따라 조속히 엄중 처벌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승가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주요 지도자들의 연속 간담회 등으로,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스님은 오는 15일부터 100일 동안 매일 108배 참회정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참회문 발표에 앞서 총무원 부·실장 스님 전원은 지난 10일 총무원장 스님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장영섭 기자 bal@bulgyo.com

지면안내

양평 용문사
친환경농업박물관 개관 4면

연등회 문화재 지정 '의미'
발전방향 '마련' 세미나 16면

군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
'군사모' 결성 17면

날마다 부처님으로 오시는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함께 해주시는 전국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생불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는 동문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생불자들이 맞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거름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되는 무한능력발전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학에 부처님의 무한한 가피와 법향이 넘치기를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대학생불자들이 더욱더 지혜와 용기로 정진하기를 두손 모아 발원하며 날마다 부처님으로 오시는 여러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2556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올림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KBUF 후원안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후원은 대학생 불자들의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 가치를 가슴에 품을 새기고 세상을 밝히시는 법등스승이 되겠습니다.

■ 후 원 계 좌 ■
농협 053-01-252865, 국민 023-01-0565993
(예금주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KBUF Young Buddhist Camp
(KBUF 대학생 여름캠프)
• 8월 9일(목) ~ 12일(일)까지
• 신라 바다가 있는 강원도에서 함께해요 ^^
• 신청은 언제 어디서나 02-732-0239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사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번지 402호 (우:110-170)
TEL 02-732-0239 / 739-0913 FAX 02-732-0240
E-mail=ilovekbuf@hanmail.net www.kbuf.org

※본 광고는 대불련 회장단, 전국지부장단(회의), 중앙집행위원회, 지도위원단, 지문위원, 역대 대불련 회장단 등의 모연과 이루어졌습니다.